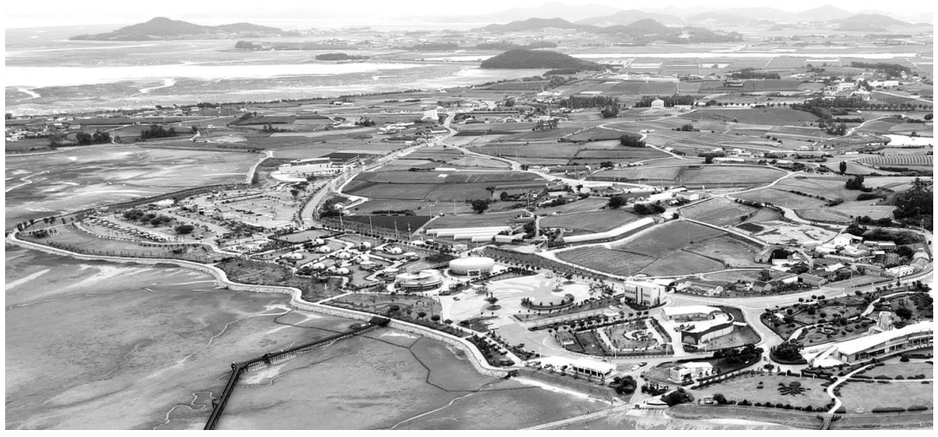
무안황토갯벌축제 4년만에 열린다

9~11일 갯벌랜드서 체험·먹거리 등 다양…생태계 보호 챌린지·토크쇼·드론쇼

? 무안갯벌
250종의 저서생물과 칠면초, 갯잔디 등 56종의 염생식물, 혹부리오리 등 52종의 철새들이 찾는 생태계 보물창고로 전국 최초 갯벌습지 보호지역 제1호, 람사르습지,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무안군이 오는 9일부터 4년만에 대면 축제로 무안황토갯벌축제를 연다. 축제가 열리는 무안황토갯벌랜드 전경. 〈무안군 제공〉

제9회 무안황토갯벌축제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무안군 해제면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열린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황토갯벌 1㎡의 가치'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저감에 뛰어난 무안갯벌의 가치를 배우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 참여 잇기(챌린지)를 중심으로 '갯벌아 고마워 지구를 부탁해' 표어의 깃발 행진, 서울대학교 김종성 교수와 함께하는 '황토갯벌 푸른 탄소(블루카본) 토크쇼'가 펼쳐진다.

또 '워커블시티 무안'을 알리기 위한 맨발걷기시민운동본부 박동창 박사의 '치유의 황토갯벌 맨발걷기'가 운영되고, 무안갯벌의 밤하늘에 무인기(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져 방문객에게 짜릿한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행사기간 동안 매일 갯벌체험장에서는 꿈틀꿈틀 손맛이 느껴지는 낙지·장어 잡기, 농게 잡기 체험과 황토밭에서는 양파 캐기, 고구마 순 심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남권 최고의 생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는 갯벌생물의 다양한 특징을 배울 수 있는 생태갯벌과학관과 갯벌체험학습장, 해상안전체험관, 분재테마전시관은 물론 숙박시설 황토이글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박문재 무안축제추진위원장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축제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가족과 함께 무안황토갯벌축제장에 오셔서 건강도 챙기고 치유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완도군 '정원페스티벌' 인기에 10월까지 연장

작가 정원 등 50여개 조성…완도 특산물 즐기는 가든 레스토랑도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열리는 완도 해조류센터 일원. 〈완도군 제공〉

5월 한 달간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을 진행한 완도군이 오는 10월 말까지 전시를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세 번째 열린 '정원 페스티벌'은 처음으로 해변에서 개최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완도 해변공원과 완도 해조류센터 일원에 마련된 축제장에는 50여 개의 특색 있는 정원이 조성됐다.

완도 특산물을 난대 숲 정원에서 즐길 수 있는 '가든 레스토랑'과 작가 정원 4곳, 참여 정원(튜브가든) 30곳, 섬자리 정원(보트 가든) 12곳 등이 마련됐다.

행사장 전 구간에는 인조 잔디를 깔아 아이와 함께 온 가족 단위 관객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완도군은 정원 페스티벌 연장을 바라는 지역민 의견에 따라 '연장 전시 계획'을 세웠다.

축제장 곳곳에는 새로 화단과 사진 촬영 공간을 설치하고, 정원에 여름꽃을 심을 예정이다.

매달 2회 이상 길거리 공연을 열어 관광객의 볼거리를 풍성하게 할 방침이다.

완도군은 여름철 태풍 등 재해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재정비를 신속히 시행하고 정원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행사장을 여러 차례 방문할 때마다 정원을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다"며 "바다와 어우러진 정원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잘 즐기길 바라는 마음에 전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D등급' 저수지 손본다…특별교부세 24억 확보

D(위험)등급을 받은 마산면 호교저수지, 산이면 덕송저수지, 화원면 수동저수지에 대한 보수 공사가 진행된다.

해남군은 위험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저수지 3곳 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 24억원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해남군이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에 대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18년 3억원, 2020년 5억원, 지난해 25억원 등이 있다.

이들 저수지는 국지성 호우가 내릴 때 물이 넘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해남군은 저수지 제방을 높이고, 여수로(물길)를 확장하는 공사를 벌일 방침이다.

군은 중요한 농업 기반시설인 296개 저수지를 분기마다 안전 점검하고 있다.

이후 위험도가 높은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벌여 보수·보강작업을 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앞으로도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를 발굴해 국비를 지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기자 노트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 유감

정은조 전남총괄취재본부장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평소에 무척 흔하던 것도 막상 필요해 쓰려고 하면 없다는 의미이다. 최근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의 행태와 유사해 하는 말이다.

완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소지 인근에 농협중앙회가 있는데도 굳이 버스나 택시를 타고 원거리에 있는 지역(단위) 농협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중요한 일로 완도군지부를 찾아도 담당자가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고, 창구 직원도 적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불만 때문이다.

실제로 주민 박 모 씨와 정 모 씨는 최근 민원 관계로 오후 2시께 농협창구를 찾았으나 여직원 1명만 자리에 있었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일을 볼 수 없었다. 직원은 기다리라고만 했고,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짜증이 날 정도였다고 제보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부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 등 자동화기기도 달랑 2대뿐이다. 고장도 잦아 이용객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자동화기기가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이 수밖에 않되는 점은 생각해볼 사안이다.

이와 관련 6년 전까지 잘 운영해왔던 해안로의 농협365코너가 다시 소환된다. 군지부는 해안로 4거리에 농협365코너를 설치해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고, 꽤 많은 사람이 이용해 왔다. 하지만 입점해 있던 건물이 갑자기 철거되면서 농협365코너가 폐쇄됐고 원도심에 있는 지부를 찾아야만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금융기관인지라 원도심에 위치해 있어 신도심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친절과 잦은 기기 고장으로 주민에게 불만을 산다면 지역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중앙회로서 의무와 역할을 내버리는 처사가 분명하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먼 거리임에도 버스나 택시를 타고 군지부를 찾는 고객들은 농협의 개혁에 대한 노력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을까. 이젠, 변화가 필요하다는 고객의 목소리에 답할 때다.

/ejhung@kwangju.co.kr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찾아가는 전시'

30일까지 경기 파주·9~10월 충북 청남대 등서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찾아가는 기념관' 전시〈사진〉를 연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9~10월 중 충북 청주시 청남대에서 열린다.

'찾아가는 기념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알릴 수 있는 전시물을 선보인다.

이달 30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서 '다시, 6·15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전시가 열린다. 6·15 남북정상회담 사흘간의 기록이 담긴 사전 34점이 전시된다.

9~10월 중에는 청남대에서 김 대통령의 소탈한 일상이 담긴 사진들을 선보인다.

김두복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장은 "이번 찾아가는 기념관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소박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청렴 영광' 비전 선포식 개최

영광군이 공무원의 사명인 청렴을 다짐하는 '청렴 영광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지난 30일 열린 행사에서는 공무원의 사명인 청렴과 친절, 공감, 존중 배려의 의미를 담은 청렴 조형물 제막식이 1층 현관에서 열렸다.

청사와 주차장을 연결하는 다리는 '청렴의 다리'로 조성해 개통했다.

조형물과 청렴의 다리가 설치된 곳은 공무원뿐 아니라 군청을 방문하는 외부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청렴을 향한 공직자들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영광군은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과 전남도에서 실시하는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